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음 8월 22일) 제19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0일 제3회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를 맞아 도청 1층 전시장에서 진행된 '사투리 손글씨 공모전'에 출품한 도지사 방문해 우리말 가꾸기 등 관련자들이 함께 전시된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최장 10여일간 추석 연휴 전주한옥마을 '인산인해'

최근 추석 황금연휴 동안 전주한옥마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10일간의 추석연휴기간 중 한옥마을 경계전 등 전주지역 16개 주요 문화시설을 찾은 이용객 수가 총 30만8493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시, 이용객 30만8493명 집계
하루 평균 3만849명 방문
지난해 1만4836명 대비
올해에는 2배 이상 증가

시설별로는 경기전이
9만1956명으로 가장 많아
네비게이션 순위서도 1위

이해는 전주시 문화시설에 하루 평균 3만849명이 방문한 것으로, 지난해 5일간의 추석연휴기간 13개 문화시설에 총 7만4178명이 다녀가 하루 평균 1만4836명의 이용객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번 통계는 유료관광지이거나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객 집계 가능한 문화시설로, 이번 연휴기간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실제 관광객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설별로는 경기전이 9만19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진박물관(7만 5865명)과 전주공예품전시관(4만 8102명), 소리문화관(2만100명), 전통술박물관(1만8793명) 등이 그 뒤

를 이었다. 요일별로는 추석 다음날인 지난 5일이 5만1614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았으며, 7일과 6일에도 각각 4만 8168명과 4만3168명이 한옥마을 등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해 차례와 성묘 등을 마친 시민과 관광객이 가족들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한옥마을은 추석 황금연휴기간 내비게이션 검색어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대박난 인기를 실감했다.

실제,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원내비'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색어 데이터와 실제 이동기록 등 사용자 이용기록 46만여 건을 분석해 발표한 '추석 연휴 많이 찾은 관광지' 순위에서도 삼성에버랜드와 해운대해수욕장,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전주한옥마을은 또, 카카오톡이 지난달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3038만건의 길안내 정보 등을 종합해 발표한 검색어 순위에서도 인천공항과 스타필드고양 등 교통시설과 쇼핑시설을 제외한 목적지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 국가대표 관광지임을 입증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 추석은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전주시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전통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돼 많은 관광객이 찾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전주에서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엿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文 대통령 "적폐청산은 사정(司正) 아닌 정의 대한민국 건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사찰'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

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였다"면서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내년 예산편성 자체사업 감당 부담

전북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기금을 포함 할 경우 6조 원대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입규모는 국고보조금(3조원 추정)을 제외한 자체사업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2조956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 실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5조 2,100억원 규모다.

이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도가 부담해야 예산은 2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의무적경비가 1조750억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4,804억원, 자체사업은 6,200억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가 검토 중인 자체사업 신규 및 계속사업 요구액 6,200억원이며, 이중 1,000억원 정도의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국세수입 호조로 인한 지방교

전북도, 경직성 경비 세출소요 대폭 증가 따라

전국체전·지방선거 등 신규 세출소요도 ↑

부세, 부등산거래 활성화로 인한 지방세가 증가했음에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정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세출소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 예산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가 밝힌 주요 세출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4.2%포인트 증가한 4,804억원(18.4%)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 4개 분야에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344억원이다. 이중 160여원은 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다.

신규 세출소요도 크게 증가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260억원,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에 따른 도비부담금 148억원, 전통문화체험 전수관 건립 50억원, 완주소방시 신축 46억원, 전라북도 양광장 건립 52억원, 공약사업,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핵심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 외에도 시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세출소요를 감당하기가 녹초되지 않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은 도정 3대 핵심정책, 공약사업 마무리, 전라도 천년기념사업, 팜버리, 전북자존 연계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부족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사업

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까지 도의원 개별적으로 일정액씩 지원하고 있는 의원사업비는 2018년부터는 편성치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연방제 수준 재정분권을 공약으로 교부세를 인상, 소비세, 소득세 이양을 검토하고 있고 가운데 전북도는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어 세입기반이 취약한 도 지역에 가중치 적용 등을 통해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사회복지시설, 각종 단체, 시군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의 내실 있는 마무리, 전라도 천년기념사업, 2023 세계팜버리 준비 등이 차질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행복꿈틀이 뭐예요?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신나라! 팍 흥린 농업인 |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 힘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 누구나, 어디서나 스마트한 금융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남원시지부장 심민섭 |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 춘향농협 조합장 임승규 | 지리산농협 조합장 최희철 | 운봉농협 조합장 서영교 | 남원원협 조합장 방금원 | 남원축협 조합장 강병무 | 전북지리산농협 조합장 이안기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